

제48회 제1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5월 22일 상오 10시 4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5월 22일 하오 12시 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석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6명

결석의원

김삼성, 문택호, 김길환, 오세일, 이복주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47회 회의록 낭독
- 2) 향동시장 운영에 대한 진정의 건
- 3) 연동지역 수문증설 진정의 건

◆ 부의안건

- 1) 목포시 교육위원보선의 건

2)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의 건(제3회)

3) 목포시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의 건

8. 토의사항

※제47회 의회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10시 45분 이문길, 김경희 의원 퇴장 14명)

※항동시장 운영에 대한 진정의 건

서기 박찬대 진정문 낭독

◇김 경 현 의원

- 사유재산 감정위원회의 조사 부진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

◇진 복 춘 의원

- 본 건 행정부에 이송 처결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김 자 흥 의원

- 행정부에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감정위원회에 이송토록 할 것을 개의
찬동 없어 폐기

동의 표결결과 재석 의원 14명중 가7표 가결

※연동지역 수문증설 진정의 건

◇정 응 표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비단 연동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죽교1·2구
동등 그 실정이 흡사한 것이니 본 건 역시 행정부에 이송 처결할 것을 동의.
재청...4청

표결결과 재석 14명중 가 13표 가결

◇이 재 홍 의원 긴급동의

- 거 4월 10일 4월 12일자 목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김자홍 의원 발언으로 북교교에 대한 자모회의 비난 및 성적 우량아동과 불량 아동 등의 혼합교육으로 사기(詐欺)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친회비의 잉여액 80여만환의 행방을 모른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시민의 오해를 야기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김 의원의 계수에 대한 문제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며 북교교는 현재 90만환 수입에 50만환의 정례지출을 하고 여타액은 연공가금(年功加金) 등으로 안분 지출을 하는 실정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 있기를 요망한다.

◇김 자 홍 의원

- 일제고사당시 우열아동간의 시험 답안교체 등의 확증이 있는 것으로 사기교육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며, 자모회역원 2·3인의 주도로 전 학부형에 고충을 주고 있다는 것도 판연한 것이다. 그리고 계수문제에 대하여는 북교교감과 문답한바 현 재적아동 4,100명에 330환 평균 징수하면 135만환이 됨으로 교직원 52명 지급액 50여만환을 제한 80여만환이 잔여되는 바 추상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의사일정에 따라 질서 진행 할 것을 요망한다

※목포시교육위원 보선의 건

◇박 의장

- 본 건 교육위원 보선에 있어 교육청 당국의 말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선거구별 연기무기명 투표제의 시 전체적인 면에서 선출하여도 무방하다 하니 심심 검토 한끝에 양자 중 1종을 택하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

◇임 일 남 의원

- 교육법시행령 제 23조 의거 각 구별 연기무기명 투표도 선출할 것을 동의. (찬동 없어 폐기)

◇정 응 표 의원

- 연기무기명 투표로 하여 3분지 2이상의 득점미달로 인한 혼란이 야기할 것을 예측하여 각 선거구 순으로 각 의원이 입후보자를 호천하여 3분지 2이상의 득점자를 당선케 하고 불연이면 결선투표를 실시케 함과 아울러 감표위원 2명을 의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재청

◇김 영 완 의원

- 본 건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선거와도 달리 신중을 기하여 선출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전 의원이 합석한 자리에서 선거하도록 휴일로 연기할 것을 개의 ..재청.

표결결과 개의 14명중 가 3표 부결

동의 14명중 가 8표 가결

(12시 5분 김영완, 이재홍 의원 퇴장)

· 12시 15분 재석 의원 정족수 미달로 선거불능

· 폐회선언

(하오 12시 15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5월 23일

시의원 김 자 홍

작성자 주 도 식

제 48회 제2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5월 23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5월 23일 상오 10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석 21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김삼성, 문택호, 김길환,

오세일, 이복주, 이재홍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교육청학무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부의사항

1) 목포시 교육위원회 보선의 건

2)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의 건(제3회)

3)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의 건

8. 토의사항

◇김 영 완 의원 긴급동의

- 금일 해공신익회 선생의 장의식을 상오 11시를 기하여 거행케 되오니
금일은 이로써 폐회하고 명일속개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7청

표결결과 재석 15명 만장일치 가결

· 폐회선언

(상오 10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 함

단기 4289년 5월 24일

시의원 김 자 홍

작성자 주 도 식

제48회 제3차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5월 24일 상오 11시
2. 폐 의 : 단기 4289년 5월 24일 하오 12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석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6명

결석의원

김삼성, 문택호, 김길환, 오세일. 이복주 각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1) 목포시 교육위원회 보선의 건
- 2)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 차입의 건
- 3)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의 건(제3회)

8. 토의사항

※ 목포시 교육위원회 보선의 건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전차 회의에서 의원의 동의로서 결의된 선출방법은 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법에 저촉된 결의는 무효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철회함과 동시 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실시할 것을 번안 동의함과 아울러 감표위원 2명 선출할 것을 의장에 일임...재청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1표 가결

- 감표의원 이문길, 김남진 의원을 지명

개표상황

갑 선거구 : 유정두 12표 당선

을 선거구 : 천독근 4표 차점, 차남하 11표 당선, 김종식 4표 차점

병 선거구 : 이광수 11표 당선, 설준석 4표 차점

정 선거구 : 이돈채 16표 당선

무 선거구 : 안홍성 12표 당선, 김창섭 4표 차점

※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학무과장 양 찬 묵

- 제안이유설명이 있었음

◇김 영 완 의원

- 교육세의 조기징수로 활발한 예산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발부 후 징세 불능의 이유 및 중앙국민학교 문제로 도급자 규칙 저촉을 받으며 공사입찰 후 2개월이 경과한 우금 착공 불능의 이유를 설명하라

◇교육청

- 교육세 고지서는 5월 3일자 발부하였던 것이며 선거관계로 다소 부진된 감이 있으나 5~60만원 가량 징수하였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선거 관계로 세금을 징수치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며 이

로 인하여 체납케 된 세금에 대한 독촉 수수료를 면제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일시 차입에 대한 이자의 지변방도 및 2중 3중으로 시민의 부담이 과다해지는 책임을 묻는다.

◇김 자 흥 의원

- 중앙 국민학교 문제는 3월 13일자 입찰하여 우금 근3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앞으로 1개월 동안에 준공시킬 방안은 없으며 설계서에는 미송이나 나왕을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극히 불량한 와비통이란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여하, 그리고 기한 내 준공불능이면 업자대체의 용의는 없는가

◇손 백 수 의원

- 청부업자 자신의 과오로서 지연된 것을 이자가 부대되는 일시차입으로 기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김 남 진 의원

- 시민의 재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독촉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이재홍, 김영완 의원의 발언이 있었으나 독촉료 문제는 위법결의로서 당 의회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청 측

- 본 건 일시차입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경감책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교육제도 6월말까지는 완징 할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차차입금의 이용도 보류케 될지는 모르겠으며 독촉료 문제도 선처하겠습니다.

선거 관계로 징수부진 운운은 정식 취소하겠으며 금반 공사의지연문제는 6할 가량이 목재이기 때문에 목하 입하도중에 있으며 목재의 변경에 대하여는 일송과 육송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반 도에서 보조금영달도 연도 내에는 올 것이니 즉 일시 차입금의 연도내 상환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진 복 춘 의원

- 일시 차입에 대한 상환방법의 구체적인설명서를 첨부토록하여 차기 의회

에 제출토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600만환에 대한 사도(使途)를 알고싶다.

◇김 자 흥 의원

- 제 의원이 확실한 납득을 못한 것 같으니 문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심 검토케 한 연후 본회의에 상정케 할 것을 동의한다.

(찬동이 없어 폐기)

◇이 문 길 의원

- 본 회의에서 심중 검토하였으니 이 석상에서 통과 결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김 영 완 의원

- 동의에 참가하여 연도말 내에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망한다. (동의수락)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10표 가결

※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제3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양 학무과장

- 제안 이유 설명이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본 건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심 검토케 한 연후 본회의에 상정케 할 것을 동의. 재청

(12시 30분 김영완, 이재홍 의원 퇴장 14명)

표결결과 재석 14명중 가 12표 가결

· 곧 이어서 하 시장으로부터 당시 약학대학 설립을 구상하고 있는 의학박사 박동진 선생의 인사소개와 아울러 동 대학에서 부속병원 건축이 완료 되도록까지 당 시립병원을 공동운영 할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 제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음

· 폐회선언

(하오 12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5월 25일

시의원 김 자 홍

작성자 주 도 식